

월간 내일

CLOSE UP!
마음은 가까이!

유연하게 일한 다 리모트워크



리모트워크 중인
터몬 직원 김시은, 김민규님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리모트워크 중

내일로 붐업

세상을 더 즐겁게!
디노마드

날마다 레벨업

주말에 뭐 할래?



눈부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집밖에 나가기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초여름을 지나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의 더위도
즐거움과 활기찬 젊음이 담겨있는 듯 하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바깥 공기도 쉼
어제보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하루를,
눈부시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응원하겠습니다.



월간 내일

눈부신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나도 해봤다, 리모트워크!
- 10 **트렌드 인사이드**
'리모트워크' 중입니다!
- 16 **알아두자고용**
일잘러들은 디지털 툴 뭐 쓰지?
- 18 **내일이 만난 사람**
워케이션 다녀왔습니다!
-티몬 김시은·김민규 님
- 24 **정책모음, ZIP**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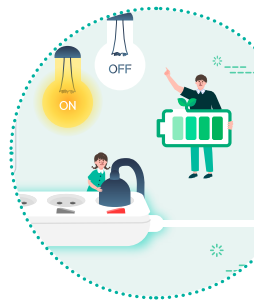
Chapter 2 내일로 불업!

- 34 뉴 스타트**
가슴 뛰는 삶을 위한 끝없는 도전
-조성복 금융 전문 강사
- 38 청년꿈터**
설렘 가득한 새로운 삶의 기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정진주 씨
- 42 굿&굿 오피스**
세상을 더 즐겁게!
소통을 더 활발하게!
-디노마드
- 46 더불어 세상**
사회 문제를 해결책으로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상상우리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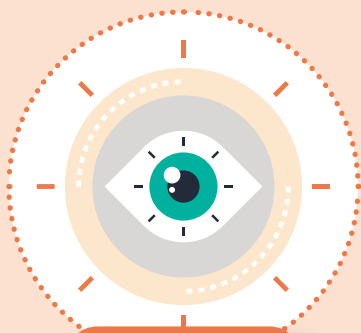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읽기**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톤**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면**
인공지능(AI) 로봇 일타 정리!
- 70 주말에 뭐 할래?**
더위를 잊게 할 오싹한 이야기들
공포와 미스터리로 세계로
- 74 그린 리추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플러그 OFF 챌린지!
- 76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6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요즘 시대 원격근무, 리모트워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예전에는 조금 낯설던 업무방식
‘리모트워크(Remote Work)’가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재택근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시간을 단축했을 뿐!
리모트워크는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당연한 변화이자 흐름입니다.

나도 해봤다, 리모트워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근무,
리모트워크(Remote Work). <월간내일>
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62%가
넘는 분들이 리모트워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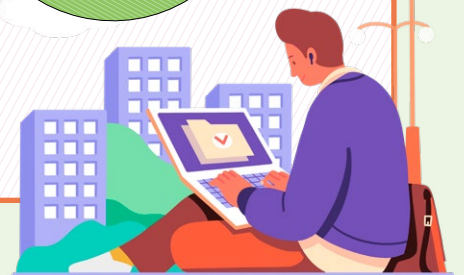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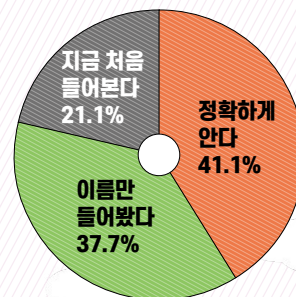
(2022.06.08.~17. 설문 진행 / 월간내일 독자 175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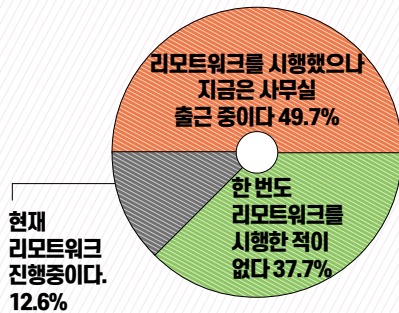
Remot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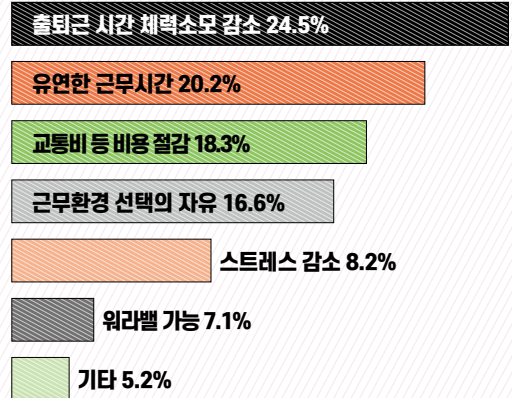
리모트워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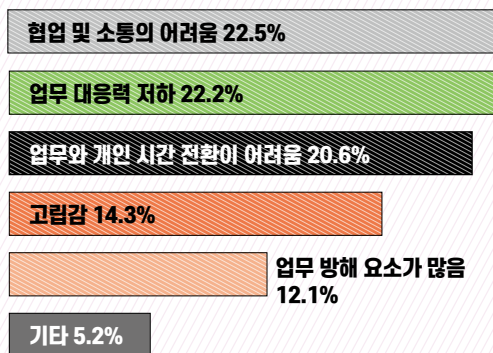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리모트워킹을
시행하고 있나요?
혹은 시행했지만 지금은 사무실로
복귀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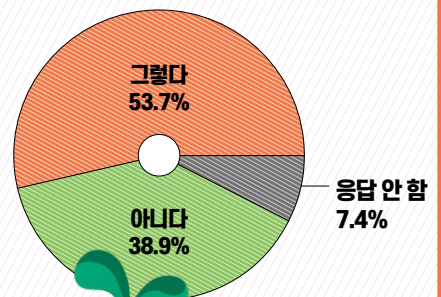
리모트워킹으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리모트워킹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리모트워킹 중 회사로
복귀하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리모트워크' 중입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카페, 공유오피스 등에서 근무한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 네, 가능합니다. 지금은 리모트워크 시대니까요.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나!

근래 들어 '리모트워크(Remote Work)'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지요? 예전에는 '원격근무'라고 하면 지점 사무실 등에서 단순히 '거리상' 떨어져 일한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원격근무, 즉 리모트워크는 훨씬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리모트워크의 형태

유연근무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차출퇴근, 요일근무, 단시간근로, 재택근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택근무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리모트워크입니다. 예전에는 재택근무의 이유나 사례가 한정적이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근무 형태가 되었지요. 자녀 교육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 혹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본사와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출장/외근

해외출장, 지방출장, 혹은 외근지(업체, 카페 등)에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 역시 리모트워크의 일종입니다.

거점오피스(공유오피스) 근무

기존 사무실이나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일하는 형태입니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제약을 보완하는 형태로, 공유오피스 등 제3의 공간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상오피스(메타버스) 근무

아직은 극히 일부이지만, 가상오피스(메타버스)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업무를 하는 방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휴가지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겸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 워케이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워케이션 수요를 겨냥한 공유오피스도 문을 열었다고 하네요.

#유연근무제

#WFA (Work From Anywhere)

#워케이션



코로나19로 일하는 판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대면 업무’가 주를 이뤘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여, 같은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보고하고 의논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의 형태였습니다. 90년대부터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긴 했지만, 일부 업종의 사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의 코로나19를 겪으며 순식간에 다양한 리모트워킹이 확산됐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리모트워킹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리모트워킹의 대중화’에 마중물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리모트워킹은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서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WFA(Work From Anywhere), 즉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워케이션’이란 개념도 2~3년 전 일본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리모트워킹은 ‘온라인 연결’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인터넷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빠르게 리모트워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던 셈입니다.

리모트워크의 이점

직장인들은 대체로 리모트워크를 환영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고정된 업무 방식에 비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피로를 줄일 수 있고 업무 몰입도가 높습니다. 일과 가사 병행, 워라밸도 상대적으로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대면 업무가 줄어들다 보니,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모트워크는 기업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를 줄여 다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리 제약 없이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개인별 업무 효율성이 좋으니 그만큼 일의 성과도 높아집니다. 원격근무가 확산되면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 화두인 요즘, 다양한 리모트워크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사 병행 #워라밸 #탄소배출 저감 효과



리모트워크 효율성?

리모트워크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대면 근무’는 대면 근무에 비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단절된 업무관계에서 느끼는 고립감, 무력감, 외로움도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점입니다. 때문에 리모트워크를 도입했다가 폐지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90년대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도입했다가 24년만에 폐지한 IBM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산, 유통, 판매직 등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아직은 리모트워크가 어려운 직종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모트워크가 ‘일의 미래’라고 입을 모읍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비대면 소통 방식과 원격 관리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새로운 일자리 트렌드, 리모트워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 추이를 관찰하면서, 나에게 맞는 리모트워크 노하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비대면 근무 #원격 관리 시스템





#번아웃
#공동의 업무
#디지털 툴



리모트워크 할 때 기억하세요

① 시간 배분은 효율적으로!

자유로운 근무 환경과 시간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휴식과 업무집중 시간을 철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의외로 재택근무 시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② 소통은 더욱 세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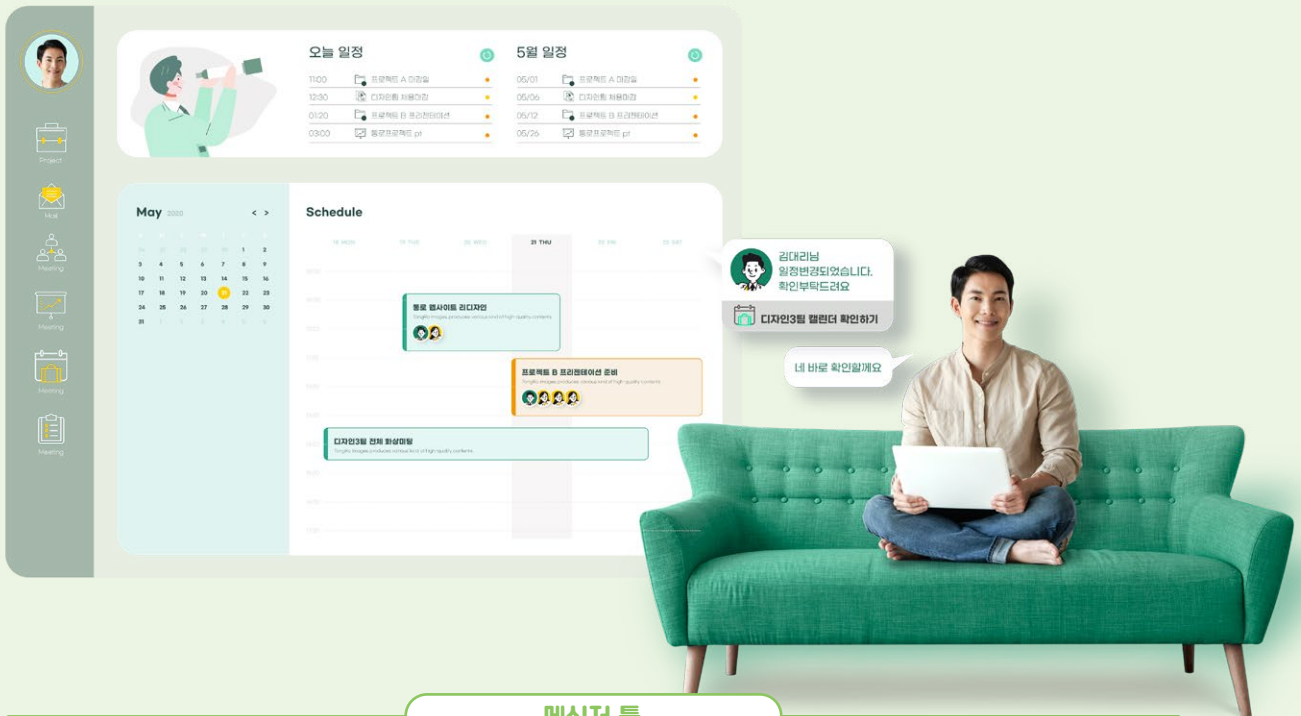
메신저와 이메일, 화상회의 등으로 비대면 업무를 하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대면업무보다 친밀한 소통은 어렵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공동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동료들을 더욱 배려해주세요.

③ 디지털 툴은 다양하게!

리모트워크를 할 때는 업무 내용을 세세하게 문서화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툴(Tool)'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니,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익혀보세요. 업무 효율성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일잘러들은 디지털 툴 뭐 쓰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리모트워크,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 화상회의를 위한 줌(Zoom)은 기본이죠.
이 외에도 리모트워크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툴을 소개해드릴게요.



메신저 툴



슬랙(Slack)

우리나라는 '카톡'이 대세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메신저는 '슬랙'입니다.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외부 서비스와 연동이 쉬워 자료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잔디(Jandi)

슬랙의 한국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자료통합 관리,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주제별 대화방'을 개설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kakaowork)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새롭게 출시한 업무 전용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메신저 외에도 화상회의, 근태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협업툴



트렐로(Trello)

게시판에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처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툴입니다. 업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이버웍스(Naver Works)

네이버에서 출시한 협업툴로 메신저를 비롯해 메일, 화상회의, 캘린더, 드라이브, AI 통번역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해외 협업툴에 비해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평을 듣습니다.



노션(Notion) / 콜라비(Collabee)

문서 기반의 협업툴로는 '노션'과 '콜라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메모 기능을 이용해 업무 기록을 남길 수 있고 협업자를 초대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글 독스(Google Docs)

구글이 만든 문서툴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자료를 편집할 수 있고, 각각의 수정 버전도 체크할 수 있어 공동문서 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화상회의툴



구글 미트(Google Meet)

화상회의 툴로는 '줌(Zoom)'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구글이 만든 '구글 미트'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으면 회의 당 1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팀즈(Teams)

MS사가 출시한 팀즈는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MS오피스365와 연동할 수 있고, 최대 250명까지 동시에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TMON

워케이션 다녀왔습니다!

티몬 김시은·김민규 님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하였습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ation)’은 리모트워크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티몬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50여 명의 직원에게 워케이션을 지원했는데요, 얼마 전 제주와 부산으로 워케이션을 다녀온 티몬의 두 멤버를 만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박 5일 제주도 워케이션

업무 환경의 전환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연결됐어요

티몬 제휴 상생팀 김시은 님



Q _ 티몬에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 2020년 3월부터 티몬의 제휴 상생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사업을 기획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요.

Q _ 워케이션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지난 5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팀원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3명의 팀원이 함께 다녀왔어요. 숙소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곳이었죠. 공항에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성산에 있는 숙소로 도착하니 호텔에 놓인 노트북이 어색할 정도로 이질감이 들었어요. 매일 오가던 도심이 아닌 성산에서의 출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같은 워케이션이었습니다.

Q _ 워케이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업무 장소가 바뀌었고 일하다 고개를 돌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것이 무척 행복했어요. 숙소에는 긴 책상과 스탠드가 있어 업무하는 데 편리했어요. 오전부로 배정받아 매일 아침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었죠. 온택트로 연이은 회의를 하기도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업무가 끝나면 제주에서의 관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서울에서의 출퇴근과는 무척 달랐어요. 무엇보다 제 업무가 지자체와 함께 로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라, 실제로 로컬의 환경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짧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Q _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3명의 팀원과 함께 떠난 워케이션이다보니 더욱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로컬의 음식점을 함께 가거나 업무가 끝난 뒤 숲으로 관광을 가기도 했어요. 하루는 연차를 내고 오토투어를 하고 바이크도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너무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녁엔 숙소에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다 보면 200~300장이 넘는 서로의 사진들이 오가곤 해요. 사진들을 보며 또 한 번 깔깔대기도 했고요. 많이 바쁘기도 하고, 리모트워크 제도로 인해 팀원들과 자주 만날 기회도 적었는데 이런 기회로 팀원들과 더 돈독해졌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Q _ 직접 워케이션을 경험해보니 생각과는 다른 장점 혹은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우선 사무실을 벗어난 다른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사무실은 정형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잖아요. 제주의 호텔이나 카페에서 일할 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표정,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저 역시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업무의 효율과 동시에 해방감을 같이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이 기획서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표현된 것 같고요. 다만, 공유오피스가 숙소와는 조금 멀어서 주로 카페에서 일한 것이 아쉬웠어요. 또 아무래도 물리적인 제약이 있으니 업무적인 거리감은 어쩔 수 없이 느껴졌어요. 또 평소에 듀얼모니터로 일하다가 그럴 수 없는 점은 조금 불편했어요.

Q _ 경험해보니 다른 동료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워케이션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완전 추천해요. 워케이션 다녀오는 걸 부러워한 팀원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꼭 다음 기회에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Q _ 말씀처럼 최근 트렌드인 리모트워크 제도를 티몬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티몬은 물리적 공간 제약을 없앤 리모트&스마트워크(Remote & Smart work)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장 업무 효율이 높은 곳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이죠. 동료들은 서울 본사와 거점 오피스, 공유오피스를 활용해 일할 수 있어요. 거점 오피스인 잠실·성수·을지로 센터 외에도 수도권 내 20~30여 개에 달하는 스파크플러스 공용 라운지 내 자율석을 이용하면 돼요. 서울 기준 30분 이내 거리에 스파크플러스 매장이 분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 인근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라 무척 편리해요.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업무의 효율과 동시에 해방감을 같이 느꼈어요. 이런 경험들이 기획서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표현된 것 같고요. 워케이션 다녀오는 걸 부러워한 팀원도 많은데, 꼭 다음 기회에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매일 오가던
도심이 아닌 성산에서의
출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꿈같은
워케이션이었습니다.

THE JOY OF
FOCUS ON
LIFE
LIFE

TMON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전환을 하며
활력을 얻고 이는
곧 업무 능력 향상으로
연결됐어요.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전환을 하며
활력을 얻고 이는 곧 업무 능력
향상으로 연결됐어요. 바쁜
일정이었지만 일이 끝나면 그동안 못
했던 부산이란 도시 탐방을 할 수
있고요. 숙소에서 조식이 해결돼
든든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이런 근무 체제 전환은 인재 밀도를
높일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4박 5일 부산 워케이션

일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티몬 프런트 개발팀 김민규 님

Q _ 티몬에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9월부터 티몬에 합류해 프런트 개발팀에서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티몬 사이트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면을 저희 팀에서 맡아 만들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으레 그렇듯, 일하는 공간의 제약이 적은 덕분에 티몬의 리모트 워크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Q _ 민규 님도 역시 워케이션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지난 5월 부산 송도로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팀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어요. 참고로 워케이션을 떠난 직원 중 90% 이상 제주도로 갔지만, 저는 부산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호텔 안에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있었고, 집이 인천인데 또 다른 항구도시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Q _ 업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부산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른 풍경,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졌어요. 대중교통만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많고요. 업무가 끝나면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산에 올라 노을 지는 야경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감천마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케이블카를 타고 암남공원에 가서 전망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여가 시간을 보내며 팀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시은 님처럼 저희도 팀원들이 함께 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죠. 다음 기회가 된다면 팀원들끼리 워케이션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Q _ 직접 위케이션을 경험해보니 생각과는 다른 장점 혹은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장점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 전환을 하며 활력을 얻고 이는 곧 업무 능력 향상으로 연결됐어요. 바쁜 일정이었지만 일이 끝나면 그동안 못 했던 부산이란 도시 탐방을 할 수 있고요. 숙소에서 조식이 해결돼 든든하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죠. 유일한 아쉬움은 화상회의를 하기에 공유오피스가 적합한 곳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공간이 모두 열려있어 서로에게 불편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숙소가 한 건물에 있어 화상회의를 해야 할 땐 숙소로 돌아갔어요.

Q _ 경험해보니 다른 동료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위케이션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팬데믹 이후 리모트워킹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티몬은 원격근무 전환이 정착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곳에 올 수 있었던 데 감사하죠. 이런 근무 체제 전환은 인재 밀도를 높일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겪은 위케이션은 창의성과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좋은 방식이었어요.

Q _ 두 분을 포함한 티몬 직원의 90%가 MZ세대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나요?

좋은 직원들이 모여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좋은 직원이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역시 이런 직원들이 와서 행복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유, 시도하길 바랍니다.

‘티몬 스마트 앤드 리모트워크’란?

2030이 구성원의 90%를 차지하는 티몬은 젊은 업무 문화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티몬 스마트 앤드 리모트워크’, 일명 TSR 체제하에서 티몬의 임직원이라면 서울에 있는 오피스가 아니라 제주도나 외국에서 일해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티몬만의 일하는 문화죠. 기업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평균 나이 29.5세로 구성된 ‘이삼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1억 원의 상금을 걸고 ‘미쳤몬 어워드’라는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촬영은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하였습니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이 정착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시에는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효율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Remote Work



Work & Balance



체계적인 유연근무 확산 전략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문화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유연근무 확산 전략을 통해 감염예방, 가족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전망과 노동시장 조사·분석 지원을 통해 정확한 정책 수립과 직원들의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하여 전년대비 지원인원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예산도 95% 이상 집행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내실있는 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자녀돌봄에 기여하였고, 워라밸(Work and Balance) 일자리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 장려금 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택트(Untact)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체계적인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간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 및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①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②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③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범위, 2천만 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재택근무 도입 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그간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가족돌봄, 업무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 및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더 체계적인 운영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에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 운영규정 작성, 복무관리 및 협업 등 인사조직 관리방안, 관련 법적 쟁점 및 질의 응답, 컨설팅 등 정부 지원제도 안내 및 기업 사례 등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조직 관리방안으로 업무절차 명확화, 복무관리, 성과관리 등 인사조직 기반 시설(Infra) 구축방안을 소개하고, 재택근무에서 중요 과제인 성공적 의사소통, 협업을 위한 팀빌딩, 재택근무자 개인의 자기책임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관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특히, 재택근무 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이나 화상회의 방법, 재택근무자 자기관리 요령 등 성공적 재택근무를 위한 정보와 실용적인 도움말, 각 분야별로 46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문답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누리집(재택근무종합안내.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기업 인센티브제에 참여해보세요!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혁신 기업으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문화, 재택근무 활용 현황 등 정량, 정성 지표로 구성됩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근무혁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3년 간 유지됩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21년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107개소 선정하였으며, 올해도 심사를 통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총 1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진행 절차

추진절차	추진내용
참여 신청	(기업)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참여기업 심사 및 선정	(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참여기업 선정공고	(운영기관) 근무혁신 참여기업 선정 공고
↓	
현장지원단 운영	(운영기관, 현장지원단) 이행계획 기초컨설팅, 중간점검
↓	
근무혁신 이행	(참여기업)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 실시
↓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근무혁신 이행결과 제출
↓	
참여기업 현장실사	(운영기관) 근무혁신 이행결과 점검
↓	
근로자 만족도조사	(운영기관)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	
우수기업 선정	(운영기관) 근무혁신 이행결과와 평가 및 등급 부여
↓	
사후관리	(운영기관) 사업장 등급별 사후관리 (선정 후 3년)

참여제외대상 기업

- ① [근로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③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 ④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 ⑤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 ⑥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 신청일 이전 의무고용 충족 시 예외)
- ⑦ [고용유지율] (최근 2년) 연속하여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 단, 심사위원회에서 근무혁신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
- ⑧ [기업성격]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⑨ [사회적몰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우수기업 선정혜택(근무혁신 재택근무 특화)

구분	인센티브명	지원내용	소관기관
감독, 조사 면제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투자비 지원(2천만 원 한도, 50%)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심사 시 가점 5점	고용노동부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우선 지원	고용노동부
금융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신한은행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경, 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 세무 등 컨설팅 제공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컨설팅 참여	일터 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
기업 홍보	기업정보 제공방식 확대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우수기업 상징(마크) 부여	고용노동부



Chapter 2

내 일 로



부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행복의 가치를 높여 내일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요.
행복해지기 위해 ‘나다움’에 집중해보세요.
매일이 행복했다고 말한 헬렌 켈러처럼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의 가치’를 높여볼까요?

가슴 뛰는 삶을 위한 끝없는 도전

조성복 금융 전문 강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중장년 조성복 씨는 금융 전문 강사로, 아코디언 연주자로, 화가로, 관광통역사로 다양한 삶을 사는 중장년의 N잡러입니다. 오랜 회사 생활을 끝내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새로운 인생을 맞는 조성복 씨를 만났습니다.





금융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금융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퇴직 후 금융 전문 강사로 새 출발

35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정리한 조성복 씨는 2017년 퇴직 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아내에게 전달해 소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압박도 기분 좋은 부담이었습니다.

조성복 씨는 지금 예금보험공사의 사회적가치경영부 생활금융교육팀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3년 정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금융 강사인증 프로그램에 신청해 2016년에 금감원으로부터 강사인증을 받고, 퇴직 이후 금융공기업의 금융 교육 강사로서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군부대, 교도소, 대학교를 포함한 각종 학교 등에서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면서 나눔의 실천과 아울러 퇴직 후의 경제력을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 초등학교부터 고령층까지 경제관념에 관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일반 저축이나 용돈 관리를, 고령층에게는 남은 생활을 위한 경제 개념을 새로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금융을 엮어 이야기합니다.

“금융과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은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누구도 돈 없는 건강을 원하진 않아요. 그러면 다들 공감하는 바도 많으시고, 우리 연령대에서 더 많은 반응을 얻을 수 있죠.”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50대가 지나며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 없이 시작하고 봅니다.

시작해야 이것이 내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코디언, 그림, 관광통역사 등 활발한 도전

조성복 씨는 최근 트렌드라는 N잡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금융 강사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통역 안내사 활동을 통해 경제력을 갖추려고 노력했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중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통역사 활동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 부부가 함께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중국 유학을 다녀온 뒤 중국 시장에 눈을 뒀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5년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엔 통역안내사 클럽에서 중년층의 안내사들과 소통하며 소중한 기회를 쌓았습니다.

퇴직 후엔 독서 클럽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곳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두 곳에서 활동 중입니다. 조성복 씨는 책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와 지식, 토론을 통한 사고의 확장 역시도 강의와 코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독서는 시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는 인생 과제입니다.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있을 때, 코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관심을 두게 됐죠. 코칭은 청소년의 진로 코칭부터 라이프코칭, 기업의 비즈니스 코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신 학문이죠. 코칭을 접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코칭을 위해서 독서는 꼭 필요하게 되었고 지금의 독서클럽이 그때부터 일상이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조성복 씨는 악기 연주도 합니다. 50대 초반, 우연히 악기 가게를 지나치다 전시장의 아코디언에 반해 그날로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산골동네에서 들던 유일한 악기이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이 가슴 깊이 남아 있던 그로서는 아코디언과의 만남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코디언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동호회를 통해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부대, 교도소 등에서 강의 시에는 아코디언 연주로 수강생들에게 재능기부의 활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에 참여했고 버스킹도 수시로 했어요.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연주하는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실버세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예술 활동도 언젠가는 경제력을 해결할 기회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인생 후반전

그런데도 조성복 씨는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엔 작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그리던 그림도 여전히 실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배워 짧은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 본격적으로 더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해금 연주를 하는 아내와 함께 멋진 공연을 계획하면서 가슴이 뛰한다고 합니다. 그림들을 모아서 5년 후 70세 때는 작품 전시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는 아내가 전시장 한쪽에서 해금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 역시 50대가 지나며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 없이 시작하고 봅니다. 시작해야 이것이 내 것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긴 인생의 3모작.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도 뛰어들어 시작하길 기원합니다.”

설렘 가득한 새로운 삶의 기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정진주 씨



다섯 개의 요리 관련 자격증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득한 정진주 씨는 강릉으로 이주한 꿈 많은 여성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책처럼, 정진주 씨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도전을 했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전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를 하면 끝을 본다는 정진주 씨는 몇 년 전까지 영어 교육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영어 교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교육과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떤 교육에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일할수록 재미있었고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어린 시절엔 어머니가 교대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 시절까지 저는 허세가 가득한 아이였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보다 대학에 나가 성인을 가르치는 게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대학교수가 될거야! 라고 했지만, 우연한 기회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정진주 씨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소녀 같은 웃음을 짓습니다. 남편의 직장에서 발령이 나와 지난 2018년 강릉으로 자리를 잡은 정진주 씨는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며 새로운 인생을 펼쳐야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발령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교육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그만두고 나니 새로운 인생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쉬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해 준

그저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했던 새로운 배움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공이
 아주 컸어요. 예전에도 무언가
 배우고 싶었지만, 항상
 어마어마한 수강료에 이내
 포기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 경제적 부담이
 수월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일이 적다는 것을 깨달은 정진주 씨는 막연히 요리에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 소풍이면 엄마가 썬 김밥을 꼭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빠서 친척에게 돈을 주고 부
 탁했죠. 그때 아이가 꼭 김밥이 아니라도 좋으니, 엄
 마가 썬 주먹밥이라도 해달라더군요. 오래된 일이지
 만 죄책감이 잊히지 않아요. 시간이 많아지니 그동안
 못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
 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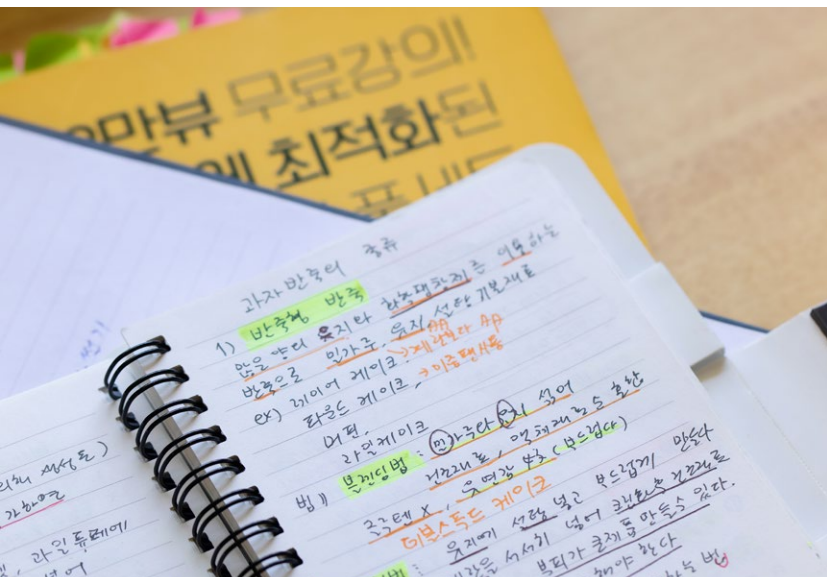
가족을 위해 시작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빵을 좋아하는 가족을 위해 시작한 제과, 제빵이었습
 니다. 홈베이킹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
 했지만, 배움이 진행될수록 빠져들었습니다. 코스가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격증 취득에도 도전
 하게 됐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성격 덕분인지 2018년부터 시작한 자격증
 도전이 지금은 다섯 개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강릉에

서도 어렵지 않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요리 학원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된장
 찌개, 김치찌개는 곧잘 끓였으니까요. 하지만 학원에
 가 보니 저는 요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구요. 기
 초부터 탄탄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필기는 한 번 만에
 붙었는데 실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양식 자격증은 다
 섯 번 도전해서 붙은걸요. 시작한 것은 단계적이지만
 제 자격증 취득일은 붙어있어요. 무슨 말이나면, 끊임
 없이 도전했다는 거예요. 자주 떨어지니 오기도 생키
 고 인디언 기우제처럼 붙을 때까지 하면 될 거라는 믿
 음도 생기더라구요.”

정진주 씨는 지금 제과, 제빵, 한식, 양식, 떡 제조기능
 사까지 다섯 개의 국가자격증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
 한 확신이 없어 막연히 국가자격증이라도 취득해 보
 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고 이력서를 쓸 때마다 자격증란이 항상 공란
 이라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칸에



5개의 자격증을 나열할 수 있게 됐죠.

“그저 호기심과 흥미로 시작했던 새로운 배움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공이 아주 컸어요. 예전에도 무언가 배우고 싶었지만, 항상 어마어마한 수강료에 이내 포기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으니 경제적 부담이 수월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가끔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국비로 공부한다고 으쓱거리곤 하니까요.”

도전이라는 행운과 성취라는 결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진주 씨는 또다시 설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식당 주방에서부터 유치원 급식실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주 씨는 자신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적었던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자격증을 이용해 취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씩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경험

치를 쌓는 중입니다.

“제대로 경험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창업하고 싶어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저만의 것을 찾는 중이죠. 최근 들어 창업 관련 서적도 많이 읽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우는 중이에요. 요즘엔 로컬에서도 다양한 재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로컬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 시작한 공부와 자격증 도전이었지만, 자연스레 지역과 타인을 위한 생각으로 커지고 있어요.”

영어 하나밖에 할 줄 몰라 평생 영어 교육업계에서만 일해 온 정진주 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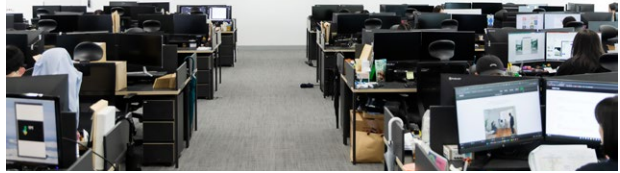
“이제 백세시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청년이란 생각이 들어요.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새로 세우는 건 저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어요. 좋은 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지원을 받으며 마음 편히 교육받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에 개인적으로 많은 호기심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에요. 행운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많은 분이 행운을 거머쥘수록 좋겠어요.”



세상을 더 즐겁게! 소통을 더 활발하게!

디노마드

EVERY MOMENT, EVERY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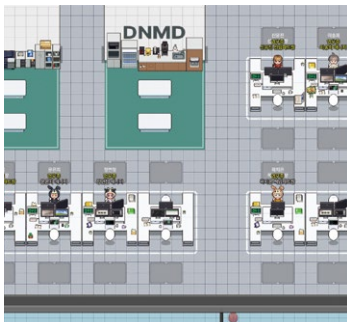
디노마드는 디자인을 찾아 나서는 유목민에서 디지털
노마드로의 자연스러운 변신에 성공해 연착 중인 기업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면서도 노사의 소통,
행복한 직원에서 나오는 즐거운 콘텐츠를 위해 과감한 근무
혁신을 시도한 디노마드는 끊임없이 발전 중입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디노마드의 사내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대부분 MZ세대로 이뤄진 회사라 자율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어 복지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혁신우수기업 선정

디자인 매거진으로 출발한 디노마드는 디지털 시장에 도전하는 메타버스 & MICE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홍대에서 여의도로 터를 옮긴 디노마드는 하이브리드 워크를 시작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디노마드만의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디노마드의 박효철 브랜드총괄이사와 조가현 이사는 이러한 근무 혁신 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특히 조가현 이사는 공인노무사로서 디노마드의 재택근무 컨설팅을 도와주다 지난 3월 디노마드에 합류했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만들어 디노마드의 장점과 매력에 빠져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신

입사원이자 디노마드 근무혁신 시스템을 만든 조가현 이사는 감회가 더욱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디노마드의 사내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대부분 MZ세대로 이뤄진 회사라 자율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어 복지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복지를 통해 MZ세대를 디노마드에 머물게 하고, 더 나아가 디노마드를 계속 트렌디한 콘텐츠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다니면 다닐수록 신선했던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케이션이라는 생소한 제도도 회사를 옮기며 처음 알게 됐고, 입사 후 받게 된 웰컴 키트도 기분 좋게 다가왔어요. 젊고 활기찬 분위기라 저 역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됐어요.”



디노마드는 애초에 ‘디자인을 찾아 나서는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듯 우리 회사가 주고자 하는 의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양한 언택트 업무 방식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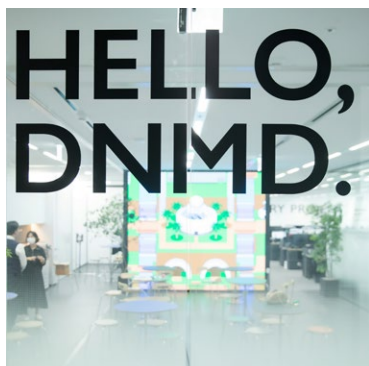
‘세상을 더 즐겁게’라는 슬로건으로 성장하는 디노마드는 이전부터 근무 혁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시퇴근이나 자유로운 연차, 유급 휴가사용, 반차, 시차 등의 효율적인 근무 시간 이용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던 와중에 재택근무제까지 도입하며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재택근무에 특화된 디노마드는 정기근로 감독 3년간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우선 지원, 대출금리 우대,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심사우대 및 절차 간소화, 기업홍보 등의 인센티브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 1회 재택근무 하는 ‘언택트 데이’ 시범운영을 통해 디노마드만의 재택 근무 규정을 수립하고, 업무환경 디지털화에 나섰다. 개인 태블릿과 각종 협업 프로그램 도입, 서울과 경기 지역 6곳에 마련한 거점 오피스 등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구축으로 근무 만족도 상승, 전년 대비 매출액 20% 향상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근엔 2022년 5월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을 또다시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박효철 브랜드 총괄이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노마드는 애초에 ‘디자인을 찾아 나서는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듯 우리 회사가 주고



자 하는 의미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며 시간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간의 제약을 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시도해 근무 혁신을 일으키고자 해요. 저희부터 ‘디지털 노마드’가 되자는 뜻이죠.”

유연성과 고효율성을 다 잡은 제도

디노마드는 가상 오피스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서울 5곳, 경기도 1곳의 거점 오피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엔 좌석제를 도입해 출근 전 자신의 사무실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팀별로 유연하게 재택근무를 운영하되, 소외감이나 사무실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상시 마련해둔다는 의도입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세상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태 관리는 네이버 워크플레이스 및 워크스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출근지와 출근 시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업무 관련 연락과 생활을 분리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사용할 태블릿도 제공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설사 연락이 와도 답변의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강제적이지 않지만, 기본 규정이

정해지자 개인정보 및 메신저로 업무지시하거나 보고하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업무환경이 달라져도 업무효율에는 변화가 없도록, 오히려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협업 툴을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가상의 오피스로 일하는데, 전 직원이 게임을 하듯 돌아다녀요. 다만 모든 직원이 카메라를 켜두도록 합니다. 누군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에요.”

생일에는 반차를 무급으로 제공하는 생일 패스, 11시부터 4시까지 코어 타임을 운영하는 플렉스 타임제도, 신입사원 입사 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온보딩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수습 기간이 종료된 다음, 자신이 느낀 경험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MZ 시대의 키워드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MZ세대가 디노마드에 와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동료와 공유하는 행위는 무척 중요해요. 디노마드는 외부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트랜스포머처럼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끊임없이 미래의 경영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거기에 맞게 기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변화에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즐겁게 할 방법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디노마드의 일자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분이 열린 마음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책으로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상상우리



우연한 기회를 시작으로 중장년들의 취업 기회를 열게 된 상상우리는 올해 10년차 사회적 기업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중장년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던 상상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중장년들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 만나는 상상우리를 찾았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조사인 만큼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퇴직 평균 나이가 53.4세더라고요. 매년 60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요. 당시엔 고령화 사회, 퇴직 후의 사회에 대해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엔 보였어요.

퇴직자들의 소중한 커리어를 위해

상상우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하자는 미션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신철호 대표는 지난 2013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신청하며 상상우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간 인큐베이팅 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고 그해 6월에 첫 샵을 뜹니다. 9년을 꽉꽉 채운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 중이죠.

외국계 리서치 기업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신철호 대표는 당시 해외 지사 발령의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본사가 있던 프랑스를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으로 움직이고 싶어 일을 찾던 중, 컨설턴트 포지션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컨설팅을 배워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고 자격증 준비도 합니다.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 후 우연찮게 공부하던 학원에서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동안만 몇 달하자”고 시작했던 강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수업마다 50여 명의 수강생이 왔습니다. 대부분 50대였습니다. 신철호 대표는 수강생들이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퇴직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 갈 곳에 관한

걱정이었죠.

“원래 하던 일이 조사인 만큼 조사를 해보니, 정말로 퇴직 평균 나이가 53.4세더라고요. 매년 60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로 계속 늘어나요. 당시엔 고령화 사회, 퇴직 후의 사회에 대해 문제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엔 보였어요. 이 트렌드로 가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텐데. 일 자리는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이분들이 20~30년간 쌓아온 커리어와 노하우가 퇴직하면서 쓸모 없어지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으로 창업하게 됐어요.”

취업 플랫폼과 일자리 발굴을 통해

창업 당시만 해도 53.4세던 퇴직 연령은 최근 49세까지 내려갔습니다. 상상우리는 40대 후반부터 60대 전후의 퇴직한 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교육 상담 매칭 프로세스를 통해 한 회사에 있다가 퇴직한 뒤 다음이 막막한 중장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취업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교육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교육을 추가로 받는 등 필요한 것들에 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상우리는 단순히 구직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곳이 아닌 일자리를 발굴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에서 이력서를 100번 넣으신 분이 오시기도 했어요. 한 번도 취업이 안 된 것이죠. 저희는 일일이 모두 연락해서 중장년층의 이력서도 검토하시나 물어봐요.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오는 건 거의 10% 미만이에요. 이렇게 모두 확인해서 발굴한 곳을 한 번에 모든 플랫폼 워크 위즈를 운영해요. 말 그대로 중장년층의 일자리만 모여 있는 취업플랫폼이죠. 괜한 기대나 헛수고를 덜 수 있으니 많은 분이 좋아해 주세요.”

일자리 발굴은 이뿐만 아닙니다. 관광, 디지털, 사회적 경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개발해 제공합니다. 중년층에 맞는 일자리 트렌드를 만든 것입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취업이나 생활을 위해 서울에서 오래 일하고 퇴직한 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캐치한 상상우리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장년의 취업과 주거를 돕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서로가 발전적인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4~5주 동안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운동처럼 취업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커리어 피트니스 정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역량을 의미하는 근력, 미래에 대한 비전인 정신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유연성, 계속된 학습과

상상우리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일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해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어느새 그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장년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더욱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상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을 이어 나가는 지구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순발력 등 다섯 가지 ‘취업력’을 개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 답을 발견하다

“중장년의 취업을 돕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회사에 취업하신 분도 계세요. 54년생이신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하진 않았지만, 다른 루트로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영화 <인턴>이 떠오르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젊은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항상 모범이 돼주셨어요. 조금 알려지며 방송국에서 나와 취재해 갈 정도였죠. 지금도 여전히 상상우리의 한 구성원으로서 많은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상우리를 찾는 사람도 많습

니다. 어느 중년은 교육 이수 후 웨딩카 드라이브 회사를 차렸는데, 일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고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가며 상상우리는 중장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시작은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이니 이를 해결해보자’였지만,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중장년은 사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상우리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일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는 ‘해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어느새 그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장년은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그들이 더욱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상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Tip.

중장년분들이 어디에 가든 “변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장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20~30년 같은 일을 하다 보면 껌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습니다. 변화하기 힘들습니다. 변화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더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교육이나 발표도 다양하게 참여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학습이나 미팅을 많이 하세요. 확장해야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MOEL News

1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10일 (금), 6개 지방노동청장 및 4개 주요 지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의 투쟁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

최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경제가 고물가·저성장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노사관계의 안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정식 장관은 각 지역별로 책임감을 갖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사관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35건→40건), 근로손실일수(11만 7,838일→13만 2,341일) 등 각종 노사관계 지표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현재의 노사 갈등은 임단협 교섭, 구조조정·고용승계, 새롭게 형성된 노사관계(특고 등),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물가의 급격한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임금피크제 판결(22.5.26. 선고 2017다292343)의 영향, △전국노동자대회(7.2) 및 금속노조 총파업(7월 중) 등 노동계의 투쟁 일정 등이 향후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토대로 대화·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기조를 확립하고, 노사가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임단협 등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사항은 주된 쟁점으로 통상의 노사관계와 다르나, 경제·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생산·물류차질 등의 상황은 본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법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각 지방관서별로 ‘교섭지원단’을 설치, 분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지방관서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교섭지도 등 갈등관리 전담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입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난 6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이용자는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컨설팅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사·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경과) ❶ '21.5.21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국회 통과('21.6.15 공포) → ❷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준비 → ❸ '22.6.16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3

K-디지털 트레이닝
제2회 해커톤 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오른 K-디지털 트레이닝(KDT) 10개 팀을 대상으로 6월 22일 디지털·신기술 분야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해커톤은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생들에게 그간 쌓아온 직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습의 장(場)을 제공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의 성과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개최된 해커톤은 케이티(KT), 네이버, 모두의 연구소 등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기관 출신의 전국 150개 팀 706명의 청년이 경쟁하며 작년 제1회 해커톤 대비 3배 이상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한 2만여 명의 훈련생들이 5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중(22.2%)과 월평균 보수액(+35만 원)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되는 등 훈련과 취업의 질이 입증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선에 오른 54명 중 31명이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자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라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2회 해커톤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 54명의 청년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팀명: 복순이)’,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관제 솔루션



구분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
상훈	장관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상	
상금	20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각 30만원

(뉴 디렉션)' 등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프로젝트들부터, '사용자와 인공지능(AI)이 번갈아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서비스(자, 언어 한접시)',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용품 추천 서비스(애니사이즈)',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숏컷)' 등 상용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 해커톤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보고 "K-디지털 트레이닝에 비전공자가 많이 참여해서인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공헌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라며 "그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쌓아온 청년들의 우수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심사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 (해커톤)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 참여자가 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 도출 및 협업을 통해 앱·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

<본선 진출 프로젝트 주요내용>

팀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주요내용	훈련기관
New Direction	긴급 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AI 기반 관제 솔루션	CCTV 영상을 통해 도로 위 주정차 차량을 식별하고 긴급 차량의 통행 가능 여부를 지도 API를 통하여 시각화하여 제공	중앙정보처리학원
Anisize	Yolov5를 활용한 체형분석 기반 반려동물 용품 추천 서비스	AWS와 Flask를 기반으로 Yolov5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인식하고 체형분석을 통해 맞춤 용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	스마트인재개발원
도로정찰대	위성사진 기반 도시 정비 인공지능 서비스	시로 위성사진 상 도로 차선의 부실한 도색을 인식해 도로정비를 돕는 디지털 서비스	KT AIVLE School
E-SurvivorDet	CD/CT 파이프라인이 적용된 경량화된 조난자 탐색 모델 제안	재난 상황(산악 조난, 홍수 등)에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할 때 경량화된 최신 객체 탐지 모델 활용하여 조난자를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추가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Edge Device에 자동 배포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안	(주)모두의연구소
숏컷	라이브 커머스 편집점 제공 및 영상 분석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에게 영상 편집점을 제시하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 및 판매자의 발화를 분석한 대시보드를 제공	한국품질재단
문익점	XAI를 활용한 간이 기업신용평가 보고서	기존 신용평가 AI모델의 한계점인 Black Box 영역을 XAI를 활용하여 설명력을 보완, 맞춤형 자동 간이 기업 신용평가서 제공	아시아경제 교육센터
크로마키	크로마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상 자동 모자이크 서비스	KT AIVLE School
복순이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음성 안내 스마트 약 보관함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약 복용하는 데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고 스스로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스마트인재개발원
자, 언어 한접시	참여형 동화 서비스	자연어 생성과 멀티모달, 키워드 추천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시가 번갈아가며 동화 1편을 창작하는 참여형 동화 생성 서비스	멀티캠퍼스 & 네이버 부스트캠프
스마트팜 TV	시를 이용한 실시간 작물 피해 알림 서비스	실시간으로 농작물을 관찰하며 작물의 발육/생육 정도 및 질병/해충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작물이 발생하면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	네이버 부스트캠프

4

철강업체 대표들과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일 14시 30분, 서울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철강사 대표이사 및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하는 철강산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철강업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간 현 시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내 올해 사망사고가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의 주요 업종 대표이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추가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276건→254건, -22건, 8%)하였으나, 제조업에서만 사망사고가 증가(73건→78건, +5건, 6.8%)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활황을 누리고 있는 철강업에서도 지난해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올해도 5월까지 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법) 상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빈틈없이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대표는 6월까지 이러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으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여 경영과 안전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업 DNA를 바꾸어야 한다.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이러한 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달라”며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렌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안전을 고려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규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ESG 경영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생각하는 사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 (6개사)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5

외국인 근로자(E-9) 2만 6천 명 입국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말까지 총 7만 3천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국토교통부)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기술지도 사업') 대상을 단부·개구부, 굴착기 작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미만 건설공사(지붕 수리, 외벽도장(도색), 철거,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내외로('20년 114명 → '21년

105명, 발생 기준) '06년부터 정부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산재예방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연간 10만개소 내외). 지난해까지는 모든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발생한 1억원 이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년동기 46명 대비 감소하였으나(▲ 28.3%), 굴착기에 끼임·맞음, 단부·개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6월 15일부터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다 재해 유형인 '지붕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고위험 현장) 공장, 축사, 주택, 근생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학교(고위험 기인물·작업) 지붕, 사다리, 비계, 고소작업대, 도장(달비계), 철거, 리모델링, 방수

< 1억 원 미만 건설현장, 3년간('18~'20) 주요 사망사고 기인물(단위: 명, 승인기준) >

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단부/ 개구부	이동식 비계	달비계	굴착기
346	92	27	19	19	16	14	12
100%	26.6%	7.8%	5.5%	5.5%	4.6%	4.0%	3.5%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

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¹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²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②(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¹한 품목 사용 허용
- ③(휴게시설: 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④(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⑤(기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²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1.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2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기간 6. 22 수 ~ 7. 31 일

**공모주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 및 신사업 창출

공모개요

- ▶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신사업 창출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 ▶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최우수작을 추천하여 창업 등 지원

활용데이터

공공데이터 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개방되어 있는

고용·노동·안전보건 분야 데이터

※ 주최, 주관, 후원, 참여기관 이 외의 기관 공공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와 융·복합 가능

응모자격

제한없음(개인, 팀, 예비창업자, 기업, 학계 등)

접수방법홈페이지 접수 www.2022datacontest.co.kr**결과발표**

2022. 8. 9(화) 전후, 수상자 개별 통지

시상내역

구분	시상 훈격	선정작	상금
최우수상	고용노동부장관상	1 점	300 만원
우수상	주관기관장상	2 점	각 200 만원
장려상	후원기관장상	3 점	각 100 만원

문의처☎ 02-2233-4019 ✉ lcm@intoimedia.com

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참여 한국사회복지기업진흥원,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성공보다 성장을 위해

잠재력을 깨워 나 자신을
유니크하게 만들고 멘탈 관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수월하게 하며
목적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장을 갈구합니다.
일과 삶, 직장 생활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하길 바라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공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가 연일 화제입니다. 실벌한 변호사오수재의 사이다 같은 발언과 통쾌한 복수들, 그를 둘러싼 음모와 깨알 같은 로맨스까지 버무려져 있는 드라마죠. 벌써 '오수재 얹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드라마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TK는 나고, 내가 TK야! 위기의 오수재, 로스쿨로 발령?



오수재는 수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TK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올라서며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가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엔 수많은 난관과 방해도 많았는데 요. 인사 발령 직후 오수재의 소원처럼 모두의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날이 오나 했지만, 뜻하지 못한 일에 휩싸여 서중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위에서 다 내려다보겠다고 다짐하는 오수재. 로스쿨 발령은 복수의 시작이 될까요, 혹은 달콤살벌한 로맨스의 시작일까요?



여기서 잠깐!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으셨나요?

간혹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 되므로 부서이동 및 업무변경,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경우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의 변동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힘들어하신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가져와!” 성희롱에 대한 오수재의 사이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희롱 장면이 <왜 오수재인가>에서도 나왔는데요. 대학 강사이자 오수재의 선배는 행사 자리에서 만난 오수재에게 과격한 스킨십을 하며 성희롱합니다. 이후 학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강의를 듣는 신입생을 비슷한 방법으로 성희롱하기도 했죠. 억울한 신입생은 대자보를 붙이며 사과하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학생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넣죠. 이를 지켜보던 오수재는 자신을 희롱하던 장면이 담긴 행사장 CCTV를 공개하며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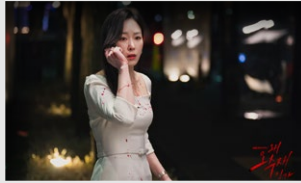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셨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직장인들의 필수입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장에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뭐라고? 교수님이 인턴 기회를 주신다고?”

로스쿨 대학생도 간절한 취업 기회



TK로펌에서 불미스러운 자살 사건에 휩싸여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오수재 변호사는 로스쿨 겸임교수로 좌천됩니다. 그러나 첫 수업부터 빼그덕거리기 시작하죠. 박소영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 내 여론이 나빠지자 학생들은 오수재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며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찬과 최윤상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강의를 보이콧해 폐강 위기에 처하지만 오수재는 별일도 아니란 듯이 공지문을 내 겁니다. ‘우수 학생에겐 TK로펌 인턴 기회와 학자금 지원’이라는 당근을 준 것이죠.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뛰어서 강의실로 돌아가고, 보이콧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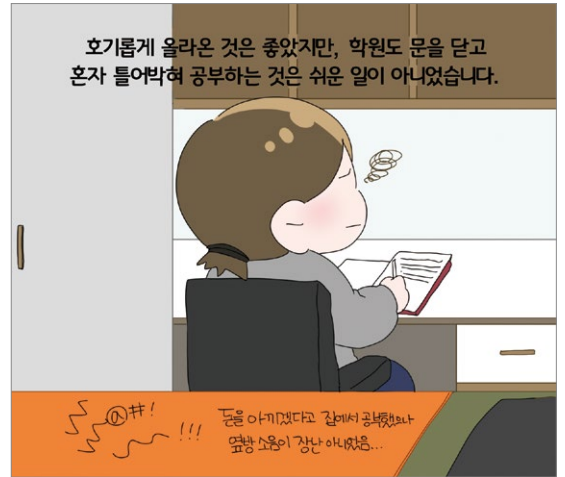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청년 취업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간절한 취업 기회,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기업 역시 청년을 고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알파고(AlphaGo)

지난 2016년 인간계 최정상급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의 대결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가 이세돌의 우세를 점쳤으나 결과는 1승 4패로 알파고의 승리.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한국기원에서 명예 프로 9단 단증을 수여해 '알파고 9단'이 됐습니다. 이후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고 제로, 보드게임까지 가능한 알파 제로,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는 무제한 등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알파고 이전에는 1996년 IBM의 체스 AI 딥블루(Deep Blue)와 디퍼블루(Deeper Blue)가 세계 체스 챔피언에게 도전해 승리를 거둔 역사가 있습니다.

소피아(Sophia)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의 얼굴을 본떴다는 소피아는 사회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헨슨 로보틱스가 제작해 2016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피아는 사람 피부와 유사한 질감의 피부를 갖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60종 이상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화제로 간단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2017년에는 '미래의 기술 변화'를 주제로 열린 UN 정기회의 무대에 올라 아미나 모하메드 UN 사무부총장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보다 나은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깨닫는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능들을 저는 이제야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인공지능(AI) 로봇 일타 정리!

이세돌과 알파고가 세기의 대결을 펼치던 2016년만 해도 인공지능(AI)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당이나 공항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사람을 대신해 음식을 서빙하거나 위치를 안내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 중인 인공지능 로봇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GPT-3

GPT-3는 스스로 코딩을 익혀 앱을 개발하고, 인간다운 텍스트로 직접 시나 칼럼을 써내기도 하는 자연어 AI 모델입니다. AI 연구소 오픈AI사가 개발한 GPT-n 시리즈의 3세대 언어 예측 모델이죠. GPT-3는 각종 언어 관련 문제 풀이나 글짓기, 간단한 사칙연산, 번역, 코딩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GPT-3가 작성한 문장은 인간이 쓴 텍스트와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언어 능력에 비해 상식과 추론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로봇

AI 로봇 기술은 인간의 심리적 안정과 공감 욕구를 채워줄 반려로봇의 형태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모습을 똑 닮은 대표적인 반려로봇으로 소니의 아이보(Aibo),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스팟(Spot), 코다 사의 코다(Koda) 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애완용 로봇 강아지 아이보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 성장하는 로봇입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팟은 아이보보다 조금 더 큰 충전형 스타일의 로봇입니다. 직접 문을 열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며, 짐 옮기기, 청소 등의 간단한 집안일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공장과 건설 현장, 지하 광산, 폭발물 처리 등 광범위한 영역에 투입돼 활약 중입니다.

A I R O B O T

서빙로봇과 안내로봇

요즘에는 로봇이 테이블까지 음식을 서빙하는 식당들이 많아졌는데요, 서빙로봇은 단순히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누비며 자율주행 배달을 하기도 하고, 요양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돕기도 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클로이, 삼성전자의 삼성봇 서빙, 배민의 딜리, 베어로보틱스의 서비, 레스토랑의 토랑, 푸두로보틱스의 푸두봇과 벨라봇 등 종류도 무척 다양합니다. 인천공항 안에는 LG전자의 지능형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항 내 시설물 위치를 안내하고 해당 장소까지 에스코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대화가 가능하답니다.

케어로봇과 교육로봇

이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교육 등도 AI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KT의 인공지능 케어로봇 다솜은 보호자 앱과 연동해 홀로 계신 부모님의 안전을 돌볼 수 있는 AI 솔루션입니다. 케어로봇의 보미는 고령자들의 치매 예방 및 뇌 기능 활성화를 돕는 인지훈련 로봇으로, 응급상황 알림이나 복약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로봇으로는 로이비, 리쿠, 목시 등이 활약 중인데요, 로이비는 개인별 학습 속도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시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지능력, 감수성 향상을 도와주며, 대화와 눈맞춤 등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찜통 같은 더위로 잠 못 이루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이야기가 제격이죠? 올여름 무더위를 모두 날려줄 기이하고 궁금하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더위를 잊게 할
오싹한 이야기들
공포와 미스터리의 세계로



아빠 대신 그 놀이 나타났다

영화 <실종>

수배 중인 연쇄 살인마를 목격한 후 포상금을 탈 생각에 들떠 있던 아빠 사토시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빠를 찾아 나선 딸 카에데는 아빠의 일터에서 아빠의 이름을 쓰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그는 바로 아빠가 사라지기 전 목격했던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카에데는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영화 <실종>은 봉준호 감독의 <도교!>, <마더>에서 조감독으로 활약한 가타야마 신조 감독이 자신의 실제 경험담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제15회 시네마시아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들의 시작

영화 <노프(Nope)>

관객들에게 신선한 공포감을 선사했던 영화 <갯아웃>과 <어스>의 조던 필 감독이 또 한번의 강렬한 신작 <노프>으로 찾아옵니다. 말 목장을 운영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인공 가족에게 어느 날 실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남매가 그 실체를 쫓을수록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고, 그들은 점점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들이 올려다본 하늘 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조던 필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기발한 이야기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레전드 호러의 귀환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 2022>

1974년 개봉 이후 40여년 동안 수많은 리메이크 시리즈가 만들어졌던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공식적인 속편입니다. 1편의 악명 높은 살인자 '레더페이스'가 다시 등장하고, 그의 주거지를 침범한 새로운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주인공 무리 외에도 1편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하더스티가 50년 동안 복수의 날을 기다려 온 할머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전히 잔혹한 미치광이 살인마의 폭주 속에서 과연 이번 속편의 주인공들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영화 <텍사스 전기톱 학살 2022>는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뒤틀린 틀에서 시작된 비극

영화 <뒤틀린 집>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서영희, 김민재, 김보민 주연의 공포영화 <뒤틀린 집>이 7월 개봉합니다. 여러 서양 공포물에서처럼, 주인공 가족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외딴집에 이사 오게 되면서 불길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사 첫 날부터 이집이 뒤틀렸다고 전하는 이웃의 경고와 창고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악몽에 시달리던 엄마 명혜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창고 문을 열게 되고, 그날부터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낡은 필름 속 과거와의 연결

드라마 <아카이브 81(Archive 81)>

넷플릭스 드라마 <아카이브 81>은 영화 <컨저링>의 제임스 완 감독과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이 함께 만든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오컬트적 요소와 SF 장르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1994년과 현재를 오가며 진행되는데요, 주인공 댄이 화재로 망가진 낡은 비디오테이프의 필름을 복원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댄은 영상을 복원하며 과거에 이를 촬영한 주인공 멜로디와 알 수 없는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영상 속에 등장하는 오컬트 집단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소리로만 남겨진 마지막 증거

오디오무비 <리버스>

주인공 묘진은 어느 날 의문의 폭발사고로 기억을 잃고 묘진의 연인 이자 차기 서광그룹 회장 준호는 그런 묘진을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두 사람은 사고의 원인을 파헤쳐가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이버 바이브(VIBE)의 오디오무비 <리버스>는 귀로 듣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오직 청각만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며 청취자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이선빈, 이준혁, 임원희 등의 배우가 생생한 목소리 연기를 펼칩니다. <리버스>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긴장감 넘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끔찍했던 악몽, 그 후 9년

웹툰 <악몽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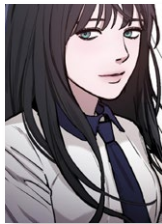
김용기 작가의 공포 스릴러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 <관계의 종말> 이후의 마지막 이야기를 그린 속편입니다. 과거 고시원 사건과 펜션 사건 이후 9년, 생존자 종우와 다은은 여전히 끔찍한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사건들을 방불케 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당시 두 사건을 수사했던 정형사가 다시 종우와 다은을 찾아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타인은 지옥이다>의 고시원 4인방을 잇는 새로운 빌런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웹툰 <악몽의 형상>은 네이버 웹툰에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괴물로 변했다

웹툰 <포식동물>

스물다섯 살의 취업준비생 상진 주변에는 그를 함부로 대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상진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곤 식인 괴물이 된 친구 선우에게 그들을 먹이로 줍니다. 하지만 매일 선우의 먹이감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고 괴물 선우는 점점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들에게도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사람을 먹더라도 사회에 해가 되는 나쁜 사람들만 먹자는 것. 날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잡아다 없애버리는 상진과 선우. 과연 이들은 인류의 구원자일까요, 포식자일까요?



우리 엄마가 살인자인 것 같다

웹툰 <뚝 닳은 딸>

스릴러 웹툰 <뚝 닳은 딸>은 2020년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의 2기 수상작입니다. 주인공 소명은 엄마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모범적이고 완벽한 딸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반면 남동생 명진은 매번 사고를 일으켜 엄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개울에 빠져 죽게 되고, 소명의 머릿속엔 동생의 죽음에 엄마가 연관되어 있다는 섬뜩한 의혹이 피어오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불과했던 소명은 기숙사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만이 엄마에게서 벗어나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오컬트 스릴러

웹툰 <안개무덤>

웹툰 <안개무덤>은 우리나라 토속신앙과 주술, 사이비 종교 등의 요소가 복합된 한국형 오컬트 작품입니다.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 속에서도 집요하게 사건을 쫓는 형사 대영의 시선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영화 <곡성>이나 <사바하>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작품 역시 흥미롭게 보실 것 같습니다. 웹툰 <안개무덤>은 2019년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영화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다채로운 '호러'적 상상력
소설 <넋이 있었다>

<넋이 있었다>는 호러를 기반으로 한 14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된 이시우 작가의 괴기 소설집입니다. 수록작 대부분은 한국 현대 사회 이면에 감춰진 문제들을 호러라는 장르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표제작 '넋이 있었다'는 밀집된 아파트 구조물에 갇힌 가족의 파멸을, '동호회'란 작품은 상류 계층의 야만적인 탐욕과 부도덕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주적 공포를 소재로 한 저자의 인기 단편 '신입사원'과 자전적 종주 중 만난 연쇄 살인마와의 추적전을 다룬 '이화령' 등도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마다 작가의 메모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초현실 속 현실 공포
소설 <저주토키>

<저주토키>는 한국 호러 SF 장르의 대표작가 정보라의 소설 집으로, 2022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후보로 지명됐던 작품입니다. 부커상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에 대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위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사용한다”고 평했습니다. 대를 이어 저주용품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손자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저주토키'를 비롯해 복수와 저주에 관한 1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잔혹한 유머와 쓸쓸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투명인간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소설 <투명인간은 밀실에 숨는다>

2021년 각종 랭킹을 휩쓸었던 일본 미스터리계 화제작 <투명인간은 밀실에 숨는다>는 신선한 특수 설정을 바탕으로 한 미스터리 단편집입니다. 특수 설정 미스터리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스터리 장르인데요, 이 책의 저자 아쓰카와 다쓰미는 이러한 특수 설정을 매우 잘 구사하는 작가입니다. 표제작 '투명인간은 밀실에 숨는다'에서는 온몸이 투명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상상력을 펼쳐 보입니다. 치밀한 트릭으로 가득한 매력적인 미스터리 세계에 흠뻑 빠져보세요.



쫓고 쫓기는 추리와 반전
소설 <여덟 건의 완벽한 살인>

스릴러 소설계의 '젊은 거장'으로 불리는 피터 스완슨의 신작입니다. 추리소설 전문 서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인공 맥켄 커크쇼. 어느 날 FBI 요원들이 찾아와 누군가 그의 블로그 포스팅에 나온 여덟 개 소설 속 살인 방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아들이 살해당했으나 곧 그의 서점 단골손님이 포함되고, 커크쇼의 아내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점점 커크쇼를 향해 다가오는 살인자의 손길. 둘 사이의 쫓고 쫓기는 두뇌싸움 속에서 배일에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플러그 OFF 챌린지!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계절, 여름입니다. 전력수요가 늘면 전기사용량이 올라가고,
이는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1도 오르면 인간 사망률 5%가 증가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손쉬운 방법은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콘센트를 뽑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의 콘센트를 뽑아 둔다면 연간 29.6kW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약 12.6kg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안 쓰는 전기 플러그는 과감하게 OFF 하세요!

7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정보보호의 날	14	15	16 초복 삼계탕 먹고, 전기 플러그는 뽑고!
17 제헌절 태극기 게양 잊지 않기!!	18 	19	20	21	22	23 대서 더위를 견뎌요
24 31	25	26 중복 	27	28	29	30 



7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7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7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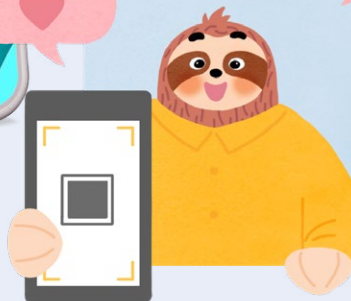
MBTI

공정한 채용절서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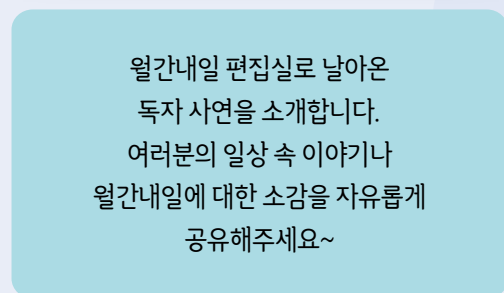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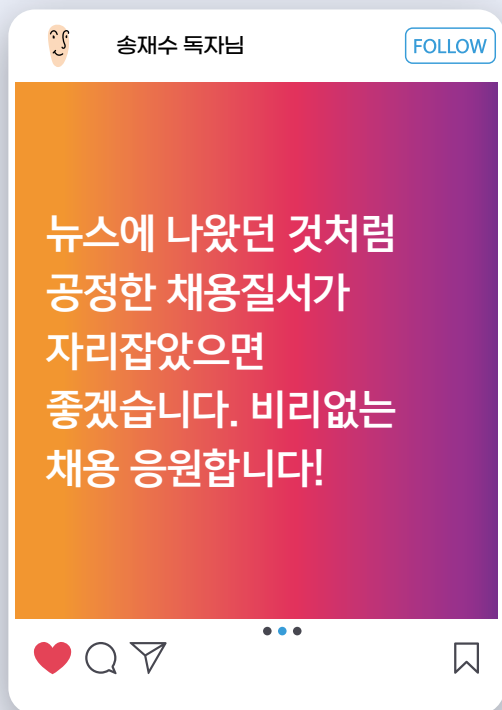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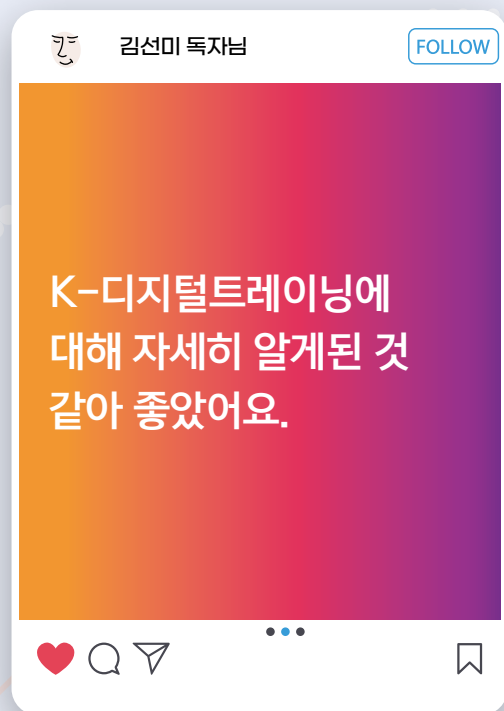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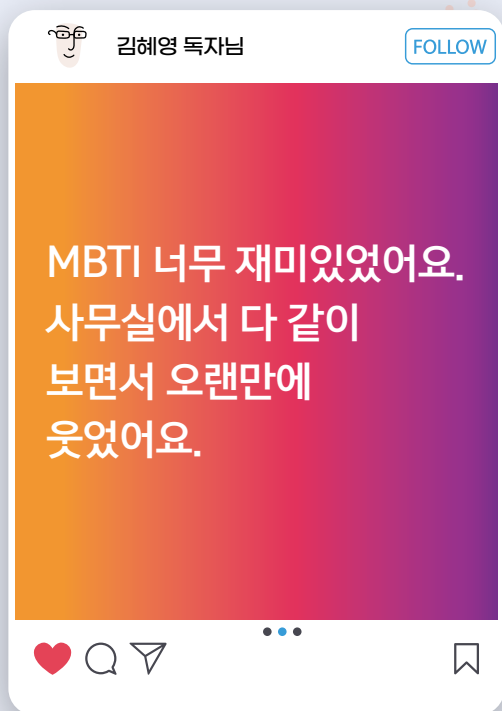


K디지털트레이닝



7월호 그린리추얼

안 쓰는 전기 플러그 OFF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EVENT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이달의 주제 맞추기

이번 7월호 “트렌드 캐치업”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카톡플친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와 함께 남겨주셔야 당첨 시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어요.

(Hint: 가상, 재택근무, 유연근무, 거점오피스근무, 워케이션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월간내일>을 읽은 소감, 기대평 등도 남겨주면 당첨 확률이 Up! Up!

추첨을 통해 20명께 맛있는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7월 11일~7월 20일 / **당첨자발표:** 8월 1일 개별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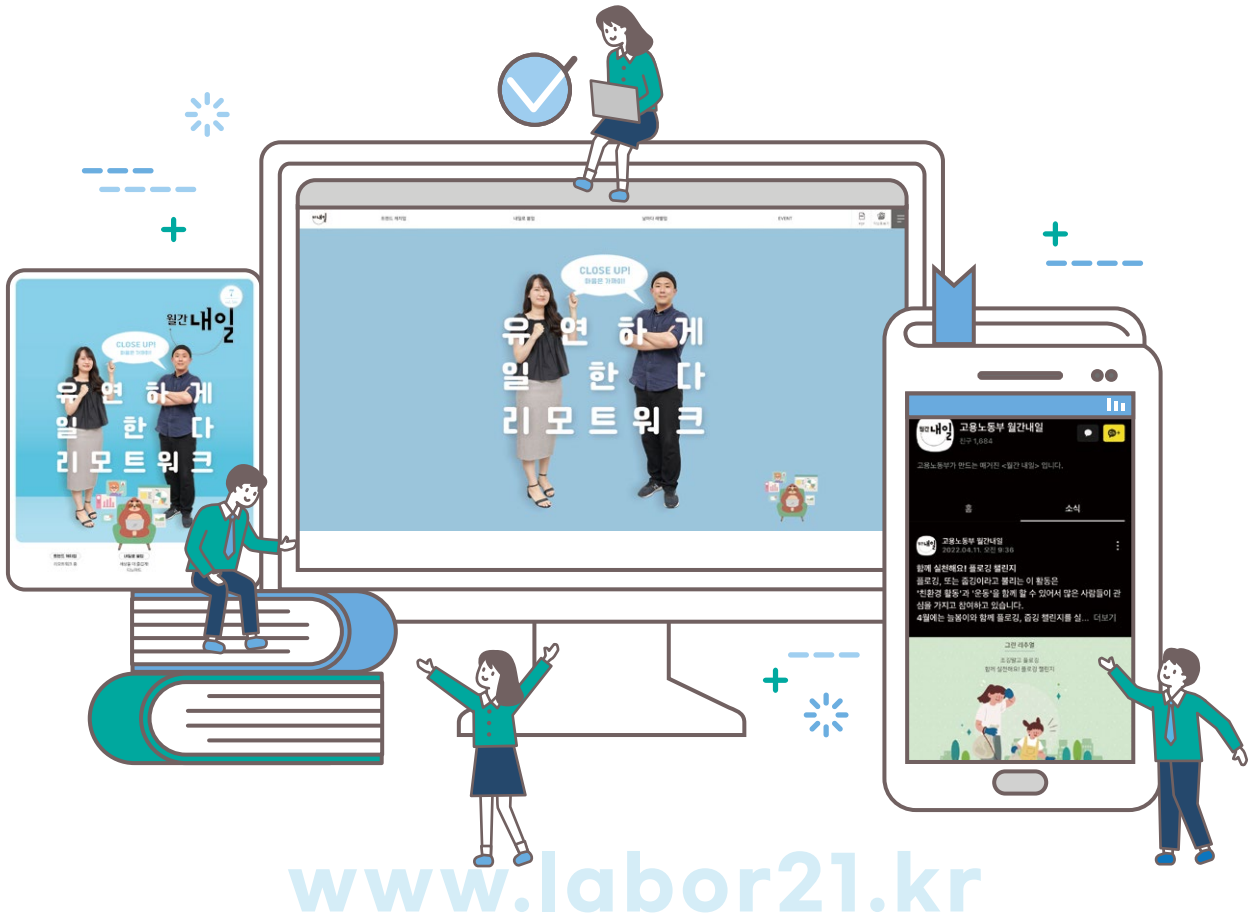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6월 이벤트 당첨자(*당첨자는 가나다 순)

김진아(1970) 김정민(7060) 김필상(2983) 김혜진(2316) 민 선(6809) 박수연(2438) 설인아(0487)
신소운(5046) 안정모(1749) 윤영희(5662) 이민정(9705) 이슬기(6756) 이자명(9207) 이현제(1318)
임나영(5180) 정혜정(9699) 최일용(2644) 최혜원(2137) 허진아(5434) 황자영(8411)

<월간 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 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❶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❷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 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❸ 카톡 플친으로 만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월간 내일'을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